



그나마 외국인 순매수 전환은 위안거리

은행 Weekly | 2026.6.22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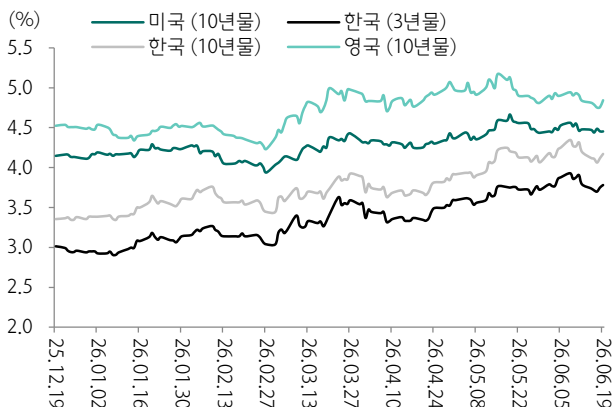
-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저PBR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10월 중 저PBR 기업 리스트 선정 및 공개 추진 예정. M&A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 절차와 자발적 상장폐지 관련 공지 강화 등의 제언도 나와
- 최근 증시투자 열풍으로 빚투가 급증하자 금융권이 신용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토스핀다 등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이 잇달아 축소. 플랫폼업계는 수익성 악화 우려에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인하 논의까지 겹치면서 이중 부담에 직면한 상황
-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발길을 돌리면서 채권자본시장이 빠르게 위축.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조달 비용이 높아진 반면 은행권은 기업금융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은행 차입이 유리해진 현상이 나타남
-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작업이 막판 변수에 부딪히며 동양생명과외의 주식교환비율 산정 과정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대주주에게 적용한 가격과 소액주주에게 적용하려는 가격이 다르다며 반발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6월 19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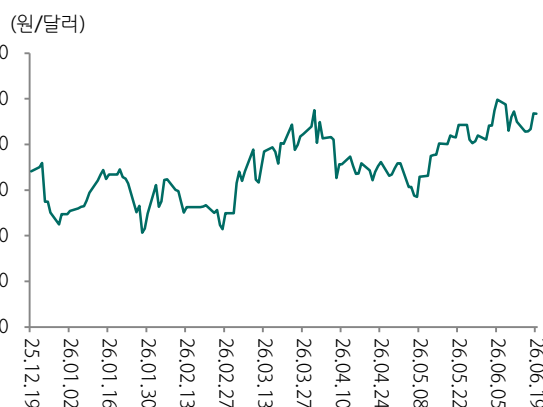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2.15	9.7	22.1		7,398,874.7	11.4	25.6	56.6	114.8	-59.4	-1,096.3	1,535.3	-993.7
은행	0.67	7.8	8.9	0.63	201,533.0	-0.2	5.4	0.0	22.4	-49.9	-34.0	224.6	-138.4
KB 금융	0.85	8.6	10.2	0.78	56,147.1	-1.8	4.4	2.0	26.9	-52.5	-48.5	41.4	18.5
신한지주	0.77	9.4	9.3	0.66	47,892.6	1.3	7.3	3.1	31.2	-54.4	21.1	81.1	-17.0
우리금융	0.56	7.2	8.2	0.52	22,793.1	-0.3	3.2	-8.4	10.9	-6.0	2.7	50.7	-39.0
하나금융	0.68	7.8	9.2	0.63	33,884.4	2.1	6.8	9.1	31.2	-26.9	8.3	76.4	-45.8
기업은행	0.46	6.1	7.6	0.55	17,104.8	-1.6	5.7	-11.0	2.4	43.4	-7.9	-9.7	-33.6
BNK 금융	0.48	6.4	7.7	0.53	5,505.2	0.4	6.2	-5.9	11.8	40.9	-2.7	-26.4	-12.8
iM 금융	0.41	5.6	7.6	0.47	2,724.2	-4.2	-6.0	-1.6	9.1	-19.9	-2.1	20.1	1.3
JB 금융	0.75	6.6	11.9	1.00	4,913.4	-2.2	4.6	-15.7	1.8	25.4	-4.8	-9.0	-10.1
카카오뱅크	1.48	18.4	8.3	0.72	10,568.2	-6.7	0.9	-11.8	2.5	-5.6	3.9	1.1	4.2
삼성카드	0.63	8.9	7.2	1.97	5,740.8	-3.8	2.5	-17.0	-11.4	32.1	-1.0	-21.7	-10.6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2% 하락해 하락 폭은 소폭에 그쳤지만 KOSPI 상승률 11.4% 대비로는 다시 큰폭 초과하락. 1) 장기물 금리 위주로 시총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리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데다 2) 중앙미디어그룹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었고, 3) 시장이 다시 반도체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여타 업종들의 수급을 모두 빨아들었으며, 4) 외환당국의 대응으로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 강세로 주중 한때 다시 1,540원선에 육박한 점 등이 은행주 약세의 주요 배경.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이란과의 종전 MOU 기대감 지속으로 장기물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6월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시사되자 단기물은 상당폭 상승.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6%로 한주간 2bp 하락한 반면 2년물 국채금리는 4.18%로 9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도 비슷한 양상. 3년물과 10년물은 각각 3.78%와 4.17%로 각각 3bp씩 하락했지만 1년물 국채금리는 3.30%로 한주간 6bp 상승. 원/달러 환율은 목요일에는 1,540원선을 상회하다가 결국 1,531.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2.7원 상승. 지난해 외국인은 그동안의 대거 순매도에서 KOSPI를 오랜만에 순매수해 약 1.5조원 매수했으며 은행주도 2,250억원을 순매수.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를 590억원 순매도한 가운데 은행주를 500억원 매도해 은행주 순매도 강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편. 국내 기관의 은행주 순매도에는 KB금융의 자사주 매입 마무리 국면과 신한지주의 자사주 매입 종료, 하나금융의 자사주 매입 중지 등으로 자사주 매입 수급이 크게 약화된 점도 한 이유였음
- 지난주에는 하나금융과 신한지주의 주가가 2.1%와 1.3% 상승해 업종내에서 가장 선방.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타행들보다 커진 점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주요 배경. 반면 iM금융은 4.2% 하락해 전통은행들 중 주가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장기간의 소외로 전전주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삼성카드도 3.8% 하락해 약세를 보였음. 카카오뱅크는 주가가 6.7%나 하락했는데 빗투 급등으로 인터넷은행들도 한도를 축소한다는 뉴스들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앙미디어그룹에 대한 유니버스은행들의 대출 익스포저는 약 5,750억원 내외로 파악.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이 각각 3,500억원과 1,5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BNK금융이 320억원 정도이며 KB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은 100~200억원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iM금융은 증권사에서 약 15억원의 여신을 보유 중.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익스포저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JTBC 사옥 등 부동산 담보 비중이 꽤 높아 2분기 중 추가 적립할 대손충당금 수준은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그 외 200억원 미만의 익스포저를 보유한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100억원대 수준에 그칠 전망. 따라서 금번 중앙미디어그룹 이슈에 대한 은행들의 추가 대손비용 적립액은 총 950억원 내외로 1,000억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중앙미디어그룹 워크아웃 신청이 은행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7월말 발표될 2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6월말까지 남은 7영업거래일의 금리와 환율 방향성에 따라 은행주 주가 흐름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짐. 외국인의 KOSPI 순매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행스러운 요인인 가운데 금주 발표될 5월 PCE 물가지수 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여지가 있음. 다만 외환당국이 분기말과 연말 환율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대응할 여지가 높은 만큼 환율이 2분기 은행 실적과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로 하락전환하고 있는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는 이스라엘과 헤브볼라간 노이즈 및 이란과의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영향 받을 듯. 그러나 금리 피벗 시각이 확고해질 경우 단기물 뿐만 아니라 장기물도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금리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듯
- 현재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 및 주가 흐름이 여타 업종들의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환경. 따라서 은행주도 반등 타이밍 모색은 결국 반도체 흐름에 달려 있을 듯. 그나마 외국인들이 최근 국내 은행주를 순매수 전환하는 등 은행주에 다소 우호적이라는 점은 큰 위안거리. KB금융과 신한지주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이 타행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소외 폭이 더 컸던 중소형은행들의 PBR Gap 메우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시각을 계속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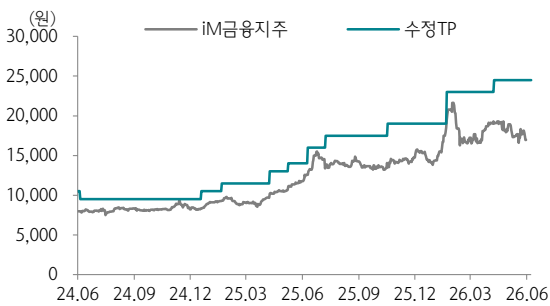
IM금융(매수/TP 24,500원), BNK금융(매수/TP 24,500원)

- 금리 상승시의 건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중소형은행들이 금리모멘텀에서 다소 소외 중. 다만 우려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 중소형은행들은 환율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고려해야. 대형은행지주사 대비 상승 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후행적 반등 기대
- NIM은 소폭 하락하겠지만 대손비용 안정화로 인해 중소형은행들인 iM금융과 BNK금융도 2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시현 예상. 양사 PBR은 0.41배와 0.48배에 불과해 업종 평균 0.67배를 크게 하회. 가격 매력에 충분히 부각 가능한 수준

Global Peer Table						(2026년 6월 19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2.15	9.7	22.1		7,398,874.7	11.4	25.6	56.6	114.8
은행	0.67	7.8	8.9	0.63	201,533.0	-0.2	5.4	0.0	22.4
KB금융	0.85	8.6	10.2	0.78	56,147.1	-1.8	4.4	2.0	26.9
신한지주	0.77	9.4	9.3	0.66	47,892.6	1.3	7.3	3.1	31.2
우리금융	0.56	7.2	8.2	0.52	22,793.1	-0.3	3.2	-8.4	10.9
하나금융	0.68	7.8	9.2	0.63	33,884.4	2.1	6.8	9.1	31.2
기업은행	0.46	6.1	7.6	0.55	17,104.8	-1.6	5.7	-11.0	2.4
BNK금융	0.48	6.4	7.7	0.53	5,505.2	0.4	6.2	-5.9	11.8
iM금융	0.41	5.6	7.6	0.47	2,724.2	-4.2	-6.0	-1.6	9.1
JB금융	0.75	6.6	11.9	1.00	4,913.4	-2.2	4.6	-15.7	1.8
카카오뱅크	1.48	18.4	8.3	0.72	10,568.2	-6.7	0.9	-11.8	2.5
삼성카드	0.63	8.9	7.2	1.97	5,740.8	-3.8	2.5	-17.0	-11.4
미국									
S&P 500	5.08	22.1	21.7	5.65	66,788.2	1.5	1.4	13.6	9.6
은행	1.64	13.1	12.5	1.08	2,201.9	2.0	9.9	16.4	2.7
Wells Fargo	1.47	12.6	12.8	0.99	251.5	-0.2	10.5	8.5	-11.8
JPM	2.41	14.6	17.1	1.27	871.4	3.7	8.1	13.6	0.9
CITI	1.21	13.2	9.7	0.71	244.0	3.6	16.9	32.3	22.6
BOA	1.40	12.6	11.7	0.96	398.8	1.9	11.4	20.6	2.2
US Bancorp	1.45	11.4	13.0	1.16	90.6	0.9	8.8	14.4	9.0
PNC	1.53	12.4	12.7	1.26	93.2	-0.8	8.6	16.2	11.2
BB&T	0.97	10.7	9.4	1.04	60.2	-4.6	2.7	11.4	-1.8
중국									
상해A주지수	1.42	14.5	10.0	1.41	65,182.8	2.7	-0.6	1.2	3.1
은행	0.65	7.0	9.4	0.68	11,693.5	-5.5	-0.8	-0.5	-9.4
공상은행	0.62	6.9	9.1	0.68	2,444.1	-6.5	-0.4	-0.8	-9.7
건설은행	0.69	7.5	9.6	0.72	2,000.6	-6.4	1.6	7.5	6.9
농업은행	0.76	7.8	9.8	0.59	2,184.2	-4.6	-3.5	-3.6	-17.1
중국은행	0.65	7.7	8.5	0.64	1,759.8	-6.8	-0.2	5.1	0.9
교통은행	0.49	6.3	7.8	0.62	576.6	-4.2	0.3	-3.2	-7.9
초상은행	0.79	6.2	12.9	1.13	955.7	-3.8	-0.6	-6.7	-11.5
일본									
NIKKEI	3.13	24.9	12.3	4.32	1,072,580.0	7.9	17.7	34.5	41.5
은행	1.43	15.1	9.4	0.47	133,585.9	2.1	6.9	24.3	33.0
Mitsubishi UHF	1.74	16.5	10.8	0.61	38,902.4	3.7	5.5	24.4	31.5
Sumitomo Mitsui Financial	1.59	15.6	10.8	0.61	24,809.8	1.2	9.1	27.7	28.6
Mizuho	1.75	16.2	11.4	0.43	19,259.3	4.2	14.5	29.7	38.3
Sumitomo Mitsui Trust	1.27	14.0	9.3	0.37	4,236.9	1.7	6.1	22.9	26.9
유럽									
MSCI Europe	2.37	16.0	14.4	1.76	15,323.4	0.5	4.6	11.0	7.6
은행	1.50	11.1	13.6	0.73	2,083.2	5.1	11.9	24.6	13.1
HSBC	1.74	11.5	15.4	0.84	246.0	4.3	7.9	22.9	22.0
Santander	1.62	11.7	13.8	0.78	173.4	7.0	15.7	27.7	17.2
BNP Paribas	0.93	8.7	10.8	0.45	111.9	5.1	16.1	23.7	25.7
Credit Agricole	0.73	7.9	9.6	0.28	53.5	5.8	12.1	16.4	0.8
Deutsche	0.87	9.4	9.7	0.47	59.4	8.1	20.6	26.9	-6.1
Unicredit	1.77	10.8	17.0	1.26	119.9	8.5	12.9	31.5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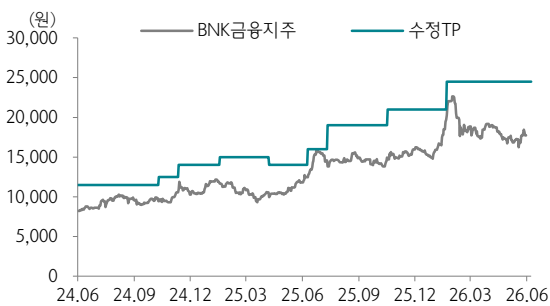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iM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9	BUY	24,500		
26.2.11	BUY	23,000	-21.75%	-5.87%
25.11.7	BUY	19,000	-21.91%	-2.58%
25.7.29	BUY	17,500	-20.98%	-15.09%
25.6.30	BUY	16,000	-10.24%	-3.06%
25.5.29	BUY	14,000	-16.30%	-10.14%
25.4.29	BUY	13,000	-19.30%	-17.77%
25.2.10	BUY	11,500	-19.99%	-15.04%
25.1.8	BUY	10,500	-14.72%	-11.62%
24.6.25	BUY	9,500	-13.31%	-1.79%

BNK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24,500		
25.11.7	BUY	21,000	-24.78%	-6.19%
25.8.1	BUY	19,000	-23.37%	-17.89%
25.6.30	BUY	16,000	-7.88%	-0.31%
25.4.28	BUY	14,000	-20.70%	-9.21%
25.2.7	BUY	15,000	-28.96%	-21.27%
24.12.2	BUY	14,000	-20.72%	-13.14%
24.10.31	BUY	12,500	-22.39%	-15.52%
24.5.2	BUY	11,500	-21.47%	-10.52%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6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30%	2.70%	0.00%	100%

* 기준일: 2026년 6월 19일